

“도움 받은만큼 베풀 수 있어 행복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지역민들에게 약손 재능기부
손끝으로 사랑 전하는 장성 옐로우시티 안마봉사단

“위매, 시원해라. 뭘 손맛이 이렇게 좋냐. 10년 넘게 쓰시던 어깨가 금방 풀어져 부렸네.”
12일 오후 장성군 황룡면 일산경로당 교육실. 동네 어르신들과 안마사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이곳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매트리스 위에 누운 주민들의 기시점(머리)부터 종착점(발끝)까지 여섯 부위를 꼼꼼하게 30분가량 주물렀다. 전신안마는 원래 1시간 코스가 기본이지만 사람이 몰릴 때는 30분으로 압축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장성군지회 회원들로 구성된 안마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매주 한 차례 이상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마사지와 지압, 안마 폼과 같은 민간요법으로 지역민들의 아픈 곳을 이루어져주고 있다.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은 물론 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에서 2년의 전문수련과정을 마친 경력

20~30년차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이들의 공식 명칭은 ‘손끝으로 사랑을 전하는 옐로우시티(Yellow City) 안마봉사단’이다.
이들은 장애를 가진 탓에 부득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조금이나마 주변에 보답하고자 황선권(57) 지회장을 중심으로 2017년 3월 봉사단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봄이 불편한 다른 장애인과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 봉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공식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만이 가진 ‘약손’으로 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경로당에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던 주민들은 “어깨 쭉시고, 무릎 아픈데는 안마가 좋다고 해서 찾아왔다”면서 “안마를 한 번 받아본 사람은 다른 마을까지 찾아가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5년 전부터 중풍을 앓고 있다는 한 주민은 “올해 초 우연히 읍내 한 경로당에서 안마를 처음 받았었는데



12일 오후 장성군 황룡면 일산경로당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안마 봉사를 하고 있다.

게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다”면서 “우리 마을에는 언제 방문하느냐고 여러차례 전화로 재근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봉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생업과 이동 불편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도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저희

안마 덕분에 어깨가 시원해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는 어르신들의 칭찬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황선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성군지회장은 “안마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교류를 지속할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석 기자



전국지체장애인대회서 강진군
지회장 차재훈 씨 지도자상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지체장애인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열리고 있으며 매년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체장애인의 인권신장과 복지 실현을 구현코자 개최되고 있다. 전국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호간의 역할관계 및 사회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날의 행사에서는 ‘2019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시상식 진행됐으며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지회장 차재훈(63)씨가 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2019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지도자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장애인들을 이끌어 주고 지도한 지회장 및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지도자를 선정하여 수여된다.
차재훈 회장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립 및 교통약자지원센터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차 회장은 “지체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화순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합학급학생 체험 학습



곡성 ‘심청골짜기 나라학교’서 80여명 참여

화순교육지원청은 11일, 곡성군에 위치한 ‘심청골짜기 나라학교’에서 관내 유·초·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합학급학생, 교사 등 80여명과 함께 여러 종류의 동물과 교

감하는 힐링 체험 학습(어류·곤충관, 미니동물원, 30여종 앵무새)과 다채로운 레크레이션 및 뉴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체험학습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비장애학생이 함께 체험활동을 통하여 친목도모 및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의 기회를

만들고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중 희망 학급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학교의 참여 학생들에게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합학급학생이 짝을 지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갖는 등 프로그램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원식은 “우리청은 통합교육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통합교육의 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